

북한 경공업 현황 및 향후 발전과제

홍 익 표*

- I. 문제제기
- II. 북한 경공업 정책 평가: 특징과 문제점
- III. 북한 경공업의 현황 및 실태
- IV. 북한 경공업의 발전전망 및 과제

요 약

최근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2010년도 신년사설 제목도 “당 창건 65돌을 맞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부문 활성화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인민생활 향상이 금년도 최우선 경제목표로 제시된 것은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경공업정책의 목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의 건설’이다. 이는 경공업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하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로 장비되어 발전되며, 자체의 원료기지를 가진 경공업을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해 경공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그러나 열악한 산업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공업의 발전가능성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기존의 국방공업과 중공업 우선의 산업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에서 벗어나 대외경제 활성화와 경공업의 수출 산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경공업부문 기업들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산을 자극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넷째, 경공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I. 문제제기

최근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2010년도 신년사설 제목도 “당 창건 65돌을 맞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부문 활성화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¹⁾ 4대 선행부문(금속, 전력, 석탄, 철도부문)보다 경공업과 농업이 최우선과제로 제시된 것은 지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혁명적 경제전략 하에서 ‘3대(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를 제시한 이후 처음이다.

이와 같이 인민생활 향상이 금년도 최우선 경제목표로 제시된 것은 역시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측

당국은 경제상황 개선의 효과를 주민들이 실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쳐 1998년부터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제시하였지만 북측의 식량과 생필품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4대 선행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하였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당 부문의 정상화가 자신들의 실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북측 당국은 강성대국 건설노선과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생활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설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 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려

1) 『로동신문』, 2010. 1. 1.

질 수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경공업부문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1월말에 단행된 화폐개혁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해 6.25 담화 직후부터 사실상 7.1조치에 대한 ‘전면수정’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기존의 ‘계획과 시장의 조화’에서 ‘계획경제의 정상화’로 정책의 방점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화폐개혁도 시장에 대한 통제와 계획경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나, 최근 화폐개혁 이후 식량 및 생필품 등의 물자부족 현상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계획경제의 정상화나 화폐개혁의 성공 등은 식량과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안정과 주민생활 향상, 중장기적으로는 강성대국의 건설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경공업 부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경공업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 경공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경공업부문의 발전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 경공업 정책 평가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서 경공업은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이다. 즉, 경공업은 일반생활에 필요한 섬유·신발·제지·식료품 등의 용품 생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²⁾ 북한 경공업정책의 목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의 건설’이다. 이는 경공업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하고 끊임 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선진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원료기지를 가진 경공업을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

이러한 경공업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북한 당국은 다음과 같은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있다.⁴⁾ 첫째, 대규모 중앙공업과 중소규모 지방공업을 병행해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공장이 경공업의 골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규모 지방공장은 해당 지역의 원료, 자재, 시설, 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지방의 수요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자체적으로

2) 사회과학원, 『경제사전』, 제1권(1985), p.80.

3) 위의 책, p.82.

4) 주성환·조영기,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무역경영사, 2003), pp.200-201.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업원료 생산 기지를 마련하여 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확충하며, 농촌경영을 다각화하여 농업생산 원료를 해결하고 지방의 특산원료를 적극 이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비품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며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공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공장설비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경공업혁명이란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경공업 생산토대를 확대 강화하고 제품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며, 그 종류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질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 당국은 경공업 혁명을 통해 경공업 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물질문화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경공업부문에 대

한 발전목표는 1950년대 이후 계속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산업정책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향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부문에 국가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공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⁵⁾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품 부족현상도 지속되어 왔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경공업의 발전이 주민들의 소비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기에 비해 경공업부문의 발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 이른바 ‘8.3인민소비품증산 운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는 방적설비의 현대화, 지방공업부문의 공정 및 설비 현대화, 합영법에 의한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⁶⁾

특히, 1994년부터는 당중앙위 제6기 21

5) 북한은 중공업중심의 산업구조를 장기간 지속시켜 오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중공업 우선 정책은 생산수단의 생산을 소비재 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켜야 한다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따른 것이다. 한편, 북한이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취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생산능력 성장 속도는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중공업부문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중공업을 먼저 육성해야 빠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도 생산재의 원활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중공업 발전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민경제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는 중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도 중공업의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실제 이러한 산업구조는 북한의 초기 빠른 공업화를 가져왔고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경공업과 농업의 소외, 서비스 부문의 취약 등 산업간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이러한 목표하에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고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1989.7~92.6)의 추진하였으며, ‘전국경공업대회’ 개최(1990.6) 및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한 경공업 제품의 공급증대 등을 적극 모색하였다.

차 전원회의(1993.12.8) 결정에 따라 완충기(1994~96) 중점공업의 하나로 경공업 제일주의 방침을 설정, 왜곡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을 증대시키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⁷⁾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경공업 제일주의가 완충기 전략의 하나로 채택된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경공업 발전의 방침 속에서 강조되었던 인민소비품 증산을 국가적 차원의 전략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생필품 부족 문제를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잠재력을 다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며, '경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⁸⁾ 이러한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 북한은 1994년 예산계획에서 경공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을 1993년 4.1%보다 높은 5.4%로 책정하였다.⁹⁾ 경공업 제일주의는 당장에 부족한 주민들의 소비품과 생필품 보장을 위해 경

공업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선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의 중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¹⁰⁾ 게다가 3대 제일주의를 표방한 완충기 경제전략은 극심한 자연재해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완충기 경제전략의 실패 이후 북한 당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강성대국론'과 선군시대 경제발전 전략 하에 '국방공업 우선,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발전'을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 문제를 옹계 결합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일 이 세 가지 문제를 옹계 결합시켜 다 같이 원만히 풀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경제건설의 일정한 단계에서 경공업의 발전에 보다 큰 힘을 돌릴 수 있지만,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포기하고 경공업의 우선적 발전으로 방향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¹⁾

7) 북한은 1993년 12월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2~3 년을 완충기로 설정하였으며, 동 기간 중에는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방침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8)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 과업," 『경제연구』, 1994년 2호.

9) 김태운·이강복,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 『아시아연구』, 2008. 12, pp.121-122.

10) 이는 소비재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이로 인해 생산수단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란 있을 수 없다는 북한의 대표적 경제학자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기하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경제연구』, 1994년 1호, p.3.

11)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2005), p.24.

이는 1990년대 부분적으로 경공업에 국
가정책 차원에서 중시하던 것에서 다시 후
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시기
와는 달리 2000년 이후 북한 당국은 4대 선
행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도, 경공업부
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
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
활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경
제건설의 본성적 요구이며 근본목적이다.
(중략) 정세의 변화와 현실적 조건에 따라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의 어느 분
야에 더 큰 힘을 넣는가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어도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본성적 요구는
달라질 수 없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입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
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을 높이는 것은 인민생
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인민소비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경공업 토대를 잘 이용하는 한편,
기술개선을 적극 추진시키며 원료와 자재문
제를 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공업과 국
방공업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필
수품을 생산하며 지방들에서도 온갖 내부에

비를 탐구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더
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²⁾

또한 변화된 대외적 환경과 나라의 구체
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구조의 개선 필요성
도 제기하였다. 우선, 경공업부문에 대한
자력갱생 노선의 부분 수정이다. 북한은 과
거 경공업제품을 거의 다 자체로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에는 경공업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원료 및
자재를 사회주의시장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 당
국도 경공업부문의 대외의존성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어느 나라나
경공업제품을 100% 자체로 생산하여 충족
시키는 나라는 없다. 발전된 나라를 보아도
경공업제품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만
생산하고 그 밖의 것은 다른 나라의 것을
사다 쓰고 있다”¹³⁾면서 실리와 효율성 차원
에서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
다. 북한은 금년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 향
상과 관련된 경공업부문의 대외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언급하였다. 신년사설은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
적으로 벌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은
경공업부문의 정상화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12)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2005), p.29.

13)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2005), p.124.

원부자재 등을 해외로부터 적극 수입하는 한편,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무역의 활성화 및 외자유치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¹⁴⁾

그러나 경공업부문도 핵심물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자체로 생산하여야 할 경공업지표는 우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들, 즉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들은 자체로 생산을 보장해야 경공업과 식료공업의 자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인민소비품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또한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이나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전통이 있는 소비품들'도 북한이 자체로 생산해야 할 경공업지표로 제기하였다.¹⁶⁾

이러한 기본입장 하에 최근 북한 당국이 경공업 발전과 관련하여 제시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기초식품을 비롯한 식료가공품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은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

환을 일으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초식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료가공품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소금, 간장, 된장, 기름, 맛내기와 같은 기초식품 생산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⁸⁾ 북한은 최근 수년간 주요 지역에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을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기초식품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자체로 그 원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을 맛있게 만들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이 장맛을 돋구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하고, 장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직물과 일용품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료품 생산과 함께 직물과 신발, 일용품 생산을 늘리는 것은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인민생활

14)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12월에 라선시를 방문하였고, 연초에 라선시를 '특급시'에서 '특별시'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측 당국은 기존의 개방지역인 라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지역의 본격적인 개방 및 외자유치와 함께, 여타 지역에 대한 추가 개방 또는 '단계적 전면개방' 등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금년 북한 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 대외경제협력이며, 향후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15) 필요한 경공업제품들 가운데서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 같은 것을 대외시장에 의존한다면 국제시장의 변동에 따라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나라의 대외적 안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2005), pp.124-125.

17)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2005), pp.180-191.

18) 식료가공업도 발전시킬 수 없고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급선무로 나서는 것은 기초식품을 원만히 생산하는 것이다(『우리 당의 선군경제사상해설』, p.181).

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셋째,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사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선을 대담하게 추진하고, 경공업 공장들에 대한 전기와 원부자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개선과 함께 외국의 현대적 공장을 들여오고, 경공업부문의 합영·합작을 통해 선진기술도 적극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인민소비품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공업 제품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공업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만 국내 시장에서 외국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갱신과 생산의 전문화, 기술공정의 준수, 근로자들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경공업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부과제를 실현하고 경공업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경공업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 인민소비품의 품질개선, 지방공업공장들의 풀가동,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생필품 생산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공장 및 기업소의 설비 현대화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섬유류 및 신발 공장들의 현대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방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공장들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와 원자재 보장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적극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주목되는 것은 품질 개선과 소비자들의 수요에 기초한 생필품 생산 확대이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우리의 경공업제품의 양이 적고 질이 낮으면 다른 나라 상품들이 우리의 시장에 밀려들게 된다”면서 중국산제품들에 의한 북측 시장장악을 우려하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민소비품의 질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왔다. 생산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갱신, 생산의 전문화, 기술공정의 준수 등과 함께 과학자·기술자들에 대해서도 경공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해왔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기초한 제품생산은 생산계획에서부터 인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장 및 기업소들이 양적 지표의 계획달성이 아닌 소비자들의 선호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이처럼 경공업을 농업 부문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인

민생활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확대가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계획경제 정상화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측의 화폐개혁이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 부문과 국영상점망에 대한 물자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북측 당국은 금년도 경제운용에 있어 경공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 채원과 물자를 총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에서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년 신년사에서 4대 선행부문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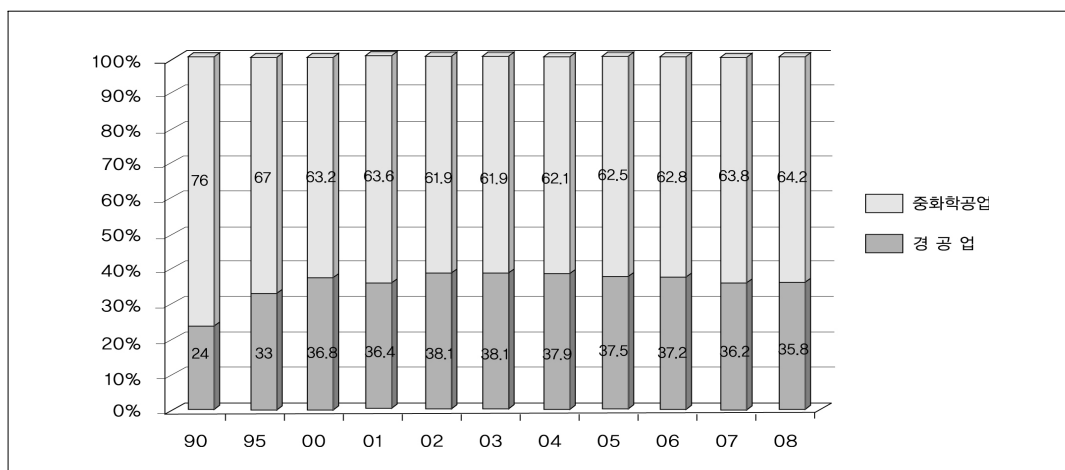
강조도 지난해까지는 국방공업의 발전과 경제전반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시되던 것과는 달리,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4대 선행부문을 비롯한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에 북측 당국은 4대 선행부문 중에서도 경공업 및 농업의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부문들(경공업 설비, 농기계 등)에 대해 우선적인 투자를 보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III. 북한 경공업의 현황 및 실태

1. 경공업 개황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50년대

〈그림 1〉 북한 제조업에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표 1〉 북한 국내총생산 및 제조업 성장률 추이

|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국내총생산 | -3.7 | -4.1 | 1.3 | 3.7 | 1.2 | 1.8 | 2.2 | 3.8 | -1.1 | -2.3 | 3.7 |
| 제 조 업 | -3.6 | -5.4 | 0.9 | 3.5 | -1.9 | 2.6 | 0.4 | 4.9 | 0.4 | 0.8 | 2.5 |
| 경 공 업 | -0.6 | -4.7 | 5.9 | 2.6 | 2.5 | 2.6 | -0.2 | 3.9 | -0.6 | -1.7 | 1.3 |
| 중화학공업 | -4.5 | -5.6 | -1.9 | 4.1 | -4.4 | 2.6 | 0.7 | 5.4 | 1.1 | 2.3 | 3.3 |

자료 : 한국은행

전후 복구시기부터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경공업부문의 비중이 30%를 넘어서게 되었는데, 이는 경공업부문의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 전반의 붕괴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의 생산위축이 컸던 것에 기인한다. 즉,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 이후 국가계획경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의존도가 높고 계획경제의 영향력이 큰 중화학공업부문에서 그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반면 경공업부문은 중소형 발전소나 자체의 원부자재만으로도 공장이 부분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피해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4대 선행부문에 주력한 결과 중화학공업부문의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북한경제의 붕괴과정에서 중공업 부문의 생산감소가 경공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경제회복세를 중공업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해 경공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품 부족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목표로 경공업 공장들의 현대화 추진과 원자재 보장대책을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양산할 것, 인민소비품 종류를 늘릴 것 등을 중점과업으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경공업 발전을 위한 각종 운동전개나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의 노후화, 시설장비 및 생산 공정의 전근대성 등으로 인해 제품의 질적 향상과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

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이후 장마당에서 팔리는 공산품 소비재의 80~90%가 중국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주요 부문별 현황¹⁹⁾

가. 섬유공업

북한의 섬유공업은 경공업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공업성에서 관리하고 있다.²⁰⁾ 북한의 섬유산업은 의류, 화학섬유, 방직 등으로 구분되는데, 섬유공업 역시 여타 경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원자재부족, 설비노후화, 기술수준 낙후 및 전력부족 등으로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 섬유산업의 경우 봉제경험을 보유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봉제의류 분야가 어느 정도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봉제설비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부문별로 보면 화학섬유의 경우 비날론과 인견섬유 등 세계적으로 도태된 화학섬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품질이 조악하며 3대 범용섬유 중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제대로 생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직부문도 저생산성의 링방직기, 북직기가 주종을 이루는 등 설비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며, 기술수준도 세계수준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의류부문 역시 일부 현대식 공장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한국, 일본 등과 임가공생산을 지속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기술축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공장으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공장,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평양종합방직공장, 강계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등이 있다.

〈표 2〉 직물 및 화학섬유 생산량

| 구 분 | 1991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직물 (백만㎡) | 210 | 180 | 108 | 101 | 98 | 99 | 94 | 100 | 104 | 125 |
| 화학섬유 (천M/T) | 54 | 56 | 29 | 27 | 26 | 26 | 25 | 28 | 29 | 30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19) 북한은 경공업을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공업, 종이공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방직공업은 화학섬유방직, 면방직, 아파방직, 견방직, 모방직 등으로 구분된다. 식료공업은 장공업, 기름공업, 과자 및 사탕공업 등으로 구분된다. 일용공업은 철제일용품, 수지일용품, 목재일용품, 전기일용품 등으로 구분된다.

20) 원사로 사용되는 화학섬유는 화학공업성에서 관리한다.

〈표 3〉

북한의 주요 섬유공장 현황

| 공장명 | 주요 생산물 | 섬유사부문 | | 직물부문 | | 비 고 |
|---------|-------------------------|--------------|-------------|--------------|-----------|----------|
| | | 생산능력 (만톤) | 정방기 (만추) | 생산능력 (억㎡) | 직기 (대) | |
| 평양 종합방직 | 비닐론, 나일론, 혼방천, 인견사 | 2.5 | 20.0 | 1.38 | 3,000 | 평양시 |
| 신의주방직공장 | 테트론, 비닐론, 인견스프혼방 | 1.8 | 11.2 | 0.53 | 2,500 | 평북 신의주 |
| 사리원방직공장 | 면사, 혼방사, 면직물, 혼방직물 | 1.7 | 10.0 | 0.66 | 2,000 | 황해북도 사리원 |
| 강계방직공장 | 면사, 비닐론, 혼방사, 혼방직물 | 3.0 | 21.0 | 1.23 | 4,000 | 자강도 강계 |
| 구성방직공장 | 면사, 비닐론, 혼방사, 면직물, 혼방직물 | 1.3 | 9.0 | 0.67 | 700 | 평북 구성 |
| 개성방직공장 | 면, 스프, 비닐론, 혼방 | 0.3 | 7.5 | 0.25 | 1,500 | 개성 |
| 혜산방직공장 | 아마사, 비닐론, 아마직물, 비닐론직물 | 0.6 | 4.6 | 0.20 | 500 | 양강도 혜산 |
| 함흥모방직공장 | 양모사, 양모직, 모방직물 | - | 5.0 | 0.15 | 500 | 함경남도 함흥 |

자료 : 산업은행, 『신 북한의 산업』(2005) 참조.

나. 신발산업

북한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대표적인 경공업중의 하나인 신발공업 역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주로 염화비닐, 천, 고무, 가죽 등을 이용하여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염화비닐을 소재로 한 단순성형과 접착공정에 의한 비닐화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²¹⁾ 원자재인 염화비닐과 직물은 북한의 화학공장과 방직공장 등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고무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

생고무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페타이어를 재활용한 신발 밑창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밖에 가죽은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신발산업 역시 주요 지역 거점별(도 소재지 및 주요 도시)로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 신발생산지역은 평양과 신의주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이 북한 전체 신발 생산능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동부지역의 경우 회령, 함흥, 청진 등에 소재한 신발공장들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주요 공장으로는 신의주신발공장, 평양염

21) 『신 북한의 산업』, 하권(2005), p.457.

〈표 4〉 북한의 주요 신발공장 현황

| 공장명 | 생산능력(연간) | 주요 생산품 | 비 고 |
|------------|-----------|-------------------------|-------------------|
| 신의주 신발공장 | 2,000만 켤레 | 운동화, 농구화, 노동화, 편리화 | 북한 제1의 공장, 평북 신의주 |
| 평양영화비닐신발공장 | 700만 켤레 | 가죽신발, 비닐신발, 사출운동화, 사출샌달 | 평양시 |
| 평양신발공장 | 600만 켤레 | 운동화, 샌달, 비닐신 | 평양시 |
| 평양구두공장 | 300만 켤레 | 가죽구두, 인조가죽구두 | 평양시 |
| 순천구두공장 | 100만 켤레 | 구두, 장화, 천신발 | 평남 순천시 |
| 개성구두공장 | 300만 켤레 | 구두, 비닐신발 | 개성 |
| 홍남구두공장 | 300만 켤레 | 의혁구두 | 함남 함흥 |
| 회령구두공장 | 400만 켤레 | 천신발, 가죽, 의혁구두 | 함북 회령 |

자료 : 주성환·조영기,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무역경영사, 2003, p.207.

화비닐신발공장, 평양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순천구두공장 등이 있다. 그 밖에 신의주와 평성 등지에 신발 부속품 공장들이 위치하여 신발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부속품들을 각 신발공장에 공급하고 있다.²²⁾

북한의 신발공업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아직 수공업적 생산방식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조기술과 디자인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설비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노후화가 심각하며,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이후 주요 신발공장들을 중심으로 설비현대화와 함께 기술혁신도 추진함으로써 신발공업의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신발산업은 생산설비의 노후화, 제조기술의 낙후, 고무·가죽 등 원부자재의 부족 및 품질조악,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신발생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품질수준도 열악한 실정이다. 북한의 신발생산은 2000년대 들어 연간 약 9,300만 켤레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내 수요에도 부족하며, 제품의 수출경쟁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²³⁾

22) 북한의 대표적인 신발 원자재 생산공장으로 평양가죽이김공장, 평양신발형타공장, 평양신발기계공장, 신의주 신발부속품공장 등이 있다.

23) 『신 북한의 산업』, 상권(2005), p.242.

다. 제지공업

북한의 제지부문은 경공업성 종이총국이 관리하지만, 벽지와 장판지는 건설건설공업성이, 화장지 등은 화학공업성 등이 관리하고 있다. 북한지역은 비교적 임산자원이 풍부하여 일제시대 때부터 펄프 및 제지공업이 대규모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해방후 이들 설비를 기초로 제지공업을 발전시켰다.

북한 제지공업의 중심지는 길주, 신의주, 혜산, 회령 등지로 이들 지역에는 목재 및

갈대 등의 종이원료가 비교적 풍부하며 일제시대에 대규모 제지공장이 건설되었다. 그 외 지역에는 중소규모 제지공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공장별 원료조달 및 제품공급 실태를 보면 길주펄프종합공장의 경우 양강도와 함경북도 일대의 목재를 주요 원료로 하여 펄프 및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펄프 중 인견펄프는 청진 및 신의주 등의 화학섬유공장에 화학섬유 원료로 공급되며, 기타 왜목펄프는 자체 신문용지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신의주화학섬유기업소 제지직장과 신의주펄프공장은 신의주지역의 갈대,

〈표 5〉 북한의 주요 제지공장 현황

단위 : 천 톤

| 공장명 | 소재지 | 주요 생산제품 및 생산능력 | | | | | | | | | |
|-----------------------|-------|----------------|-------|------|-------|-------|-------|----|-------|------|-------|
| | | 펄프류 | | | | 종이류 | | | | | |
| | | 기계 펄프 | 화학 펄프 | 고지 | 소계 | 신문 용지 | 인쇄 용지 | 판지 | 크라프트지 | 기타 | 소계 |
| 길주펄프종합공장 | 함북 길주 | 22.5 | 37.5 | - | 60 | 30 | - | - | - | - | 30 |
| 회령크라프트지공장 | 함북 회령 | - | 20 | - | 20 | - | - | - | 20 | - | 20 |
| 회령제지공장 | 함북 회령 | - | 10 | - | 10 | - | - | - | - | 12.5 | 12.5 |
| 신의주화학섬유 연합기업소 제지직장 | 평북신의주 | 4 | 50 | - | 54 | 20 | 20 | - | - | 5 | 30 |
| 신의주펄프공장 | 평북신의주 | - | 15 | - | 15 | 2 | 2 | 5 | - | 1 | 10 |
| 121호공장 | 평남 안주 | 7.5 | 33 | - | 40.5 | 10 | 20 | 10 | - | 6 | 46 |
| 혜산제지연합기업소 | 양강도혜산 | 7.6 | 20 | - | 27.6 | 7 | - | - | 20 | - | 27 |
| 기 타 | | 43.9 | 59.5 | 28.5 | 131.9 | 30 | 20 | 30 | - | 20 | 100 |
| 합 계 | | 85.5 | 24.5 | 28.5 | 359 | 84 | 62 | 45 | 40 | 44.5 | 275.5 |

자료 : 산업은행, 『신 북한의 산업』(2005) 참조.

벗집과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하여 펄프와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그 밖에 혜산제지연합기업소는 혜산 일대의 나무를 원료로 하며, 숙천주름판지공장도 숙천 일대의 벗집을 원료로 해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²⁴⁾

2004년말 현재 북한의 각종 지류 생산능력은 신문용지가 8.4만톤, 인쇄용지 6.2만톤, 판지 4.5만톤, 크라프트지²⁵⁾ 4만톤, 기타 지류 3.8만톤 등으로 약 27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04년말 기준으로 한국 지류 생산능력의 2.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²⁶⁾ 이러한 북한 제지공장의 생산활동 부진은 교육을 비롯하여 북한의 여타 산업반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제지공업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술개선과 설비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원부자재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라. 음식료품공업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 대규모 음식료품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지의 원료산지에 중소규모 지방공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즉, 북한의 식료품 생산체계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대규모 공장에서

각종 식료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중소규모의 식료품공장은 수공업 시설을 갖추어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체의 원료를 사용하여 식료품을 가공·생산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음식료품 관련 공장, 기업소는 대부분 지방공업공장으로 가내공업 수준의 영세한 설비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열악한 농업조건으로 인한 식량부족을 공업적 가공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음식료품공업의 발전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음식료품공업은 농축산물을 이용한 1차 가공품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간식류인 제과, 제빵, 음료수 및 주류 등은 생산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 음식료품공업의 문제점은 여타 경공업과 마찬가지로 가공기술의 낙후, 생산설비의 노후화, 전력부족, 원부자재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공장으로는 산하에 다수의 음식료품 공장을 갖고 있는 평양시식료연합기업소, 회령식료연합회사, 조선담배총회사, 평양곡산공장, 남포제분공장, 평양장류공장, 개성식료품공장, 산포어류통조림공장, 김책수산물가공공장, 대동강맥주공장, 개성고려인산주공장 등이 있다.

24) 북한이 갈대, 옥수수, 벗집, 나무뿌리와 나뭇가지 등 비 목재원료의 사용비중이 높아 종이류의 품질이 조악하고 매년 상당량의 종이류를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제지공업은 심각한 원료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 북한의 산업』, 상권(2005), p.213).

25) 화학펄프의 일종으로 시멘트, 설탕, 밀가루, 비료 등의 포장용지로 사용된다.

26) 『신 북한의 산업』, 상권(2005), p.214.

IV. 북한 경공업의 발전전망 및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공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인민들이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은 정책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1950년 대 전후 복구 시기부터 북한은 국방공업과 중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경공업은 예산과 물자의 배분에서 항상 후순위에 놓여졌다.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명목 하에 인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생필품을 자체로 생산하고자 함으로써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공업은 설비의 노후화, 생산기술의 낙후, 전력 및 원부자재의 부족, 품질 저하와 낮은 국제경쟁력 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산업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공업의 발전 가능성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공업은 대대적으로 설비를 현대화하고 기술을 혁신하는데 중화학공업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이고 현대화 과정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북한의 경공업은 중소규모 공장이 많고 적은 자금으로 설비 현대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북한은 경공업 발전가능성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은 첨단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단기간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공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다는 점에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 또한 경공업부문의 기술개발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투입이 크지 않다는 점도 국가의 집중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일부 경공업부문의 경우 국제경쟁력 확보가 조기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북한 경공업은 외자유치나 임가공 사업을 등을 통한 대외경제협력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대부분 군수부문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기업들이 북핵문제 해결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이전에 경제협력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경우 특성상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고 수익성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은 물론 북한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공업분야의 우선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과

거에 비해 인민생활 향상과 경공업분야의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선군시대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상대적으로 국방공업이나 관련 중공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쳐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공업 중요성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2010년 신년사설에서 예년과는 달리 경공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목표로 내세운 바와 같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기존의 국방공업과 중공업 우선의 산업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과거 북한의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은 선군혁명 노선에 따라 국방공업 우선 발전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군사비 항목에 편중된 북한의 예산구조로 인해 북한의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제약받았다. 군비증강은 북한의 산업구조를 군산복합형으로 변형시켰고, 특히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되는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또한 대외경제부문에서도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류의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국가의 자원은 해당 물자의 생산 및 수출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경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방공업에 대한 과도한 예

산과 물자 투입에서 벗어나 경공업 중심의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에서 벗어나 대외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체의 기술, 자체의 원료, 자체의 공장, 자체의 사람을 중시하는 북한의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정책은 경공업부문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발전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리위주의 대외정책'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 북한은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대외정책도 실리와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공업부문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우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공업부문 기업들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생산을 자극하고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특성상 사영기업이 출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7.1조치 이후 확산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경공

업부문 기업들에게 적극 적용하는 것이다. 경공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생산계획과 경영의 자율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 기업들이 주민과 시장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소비재 및 생필품의 생산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이는 경영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경공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재 물자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비재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7.1조치 이후 확대된 시장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시장과 소비재 생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전문 유통기관을 통해 부족한 물자를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 경공업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고, 특히 지난해 말에는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물자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현상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플레이션 재발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공업 기업들의 소비재 및 생필품 생산을 자극하고 물자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장을 통해 북한 경공업 기업들과 해외시장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경공업부문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K**

〈참고문헌〉

- 강인준, “인민생활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2003년 제6호.
-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DI, 2008.
- 권영경,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정상화 전략과 거시경제적 결과,” 『수은북한경제』, 2009년 겨울호.
- 김석진, “최근 북한 산업동향과 남북한 협력과제,” 『통일경제』, 2009년 가을호.
-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산업연구원, 2007.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태운·이강복,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 『아시아연구』, 2008. 12.
- 동용승, “북한수출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수은 북한경제』, 2008년 겨울호.
-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기하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경제연구』, 1994년 1호.
- 리영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전략적 로선,” 『근로자』, 2004년 제4호.
- 리주오,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당의 인민중시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 『근로자』, 2003년 제11호.
- 배종렬·이상만, “대북투자 분석과 투자활성화 방안: 지하자원, 농림수산업, 경공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1권 1호, 2009.
- 산업은행, 『신 북한의 산업』 (상,하), 2005.
-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 과업,” 『경제연구』, 1994년 2호.
-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경제』, 한울, 2005.
- 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KDI, 2008.
- 이석기 외,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산업연구원, 2007.
- 이석기,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2005.
- 이석기, 『북한의 지방공장 현황과 발전전망』, 산업연구원, 1998.
- 임수호, “김정일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9년 여름호.

- 전병유 외, 『북한의 시장·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정의준, 『북한의 산업실태 분석 및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산업은행, 2006.
- 조동호 외,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서울: KDI, 2002)
- 주성환·조영기,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무역경영사, 2003.
- 최수영,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통일연구원, 2005.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 한국민권연구소 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도서출판 6·15, 2007.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2권, 1985.